



박세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 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보다 나은 기술력과 첨단시설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고자 지난해 12월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통해 병원 리모델링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서인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출입구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글 박난희 기자 사진 이상윤(SEOUL EYE)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검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 암 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건강 검진 등 의료산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1,000여 평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종합검진센터 1층에서는 전문의 상담, 2층에서는 기초 검사와 심전도, 체성분, 스트레스, 동맥경화 검사, 생리기능 검사, 위내시경 검사,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3층에서는 폐질환 및 폐암 발견을 위한 흉부 X-선 검사, 위암 검사를 위한 위장조영촬영 검사, 유방암 검사, 유방초음파 검사, 간장, 비장, 신장, 췌장, 담낭암 등을 위한 복부초음파 검사, 갑상선초음파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4층에서는 혈액학적인 검사, 면역기능 검사 등의 진단의학 검사와 부인암 검진을 위한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5층에서는 검진자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연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군부대를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캠페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진 분야별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협력관계를 맺은 대형 병원으로 연결해주고 평생고객을 위한 사후관리팀의 철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곳이다.

6월 1일 부임한 윤청하 본부장은 “검진의 신속성과 전문성, 최첨단 의료 시설, 친절한 검진환경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찾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전 직원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의료사업에 이바지하고, 질 높은 건강검진사업을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건물을 확장해 종합검진센터가 재탄생되었다. 종합검진센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의료업계의 거목인 박세웅 원장을 만나보았다.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계기와 어려움은 없었는지.

점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종합검진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을 증

축하는 것이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방문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진료에 힘썼습니다. 또한 빠른 건물 증축 진행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모두 힘을 모아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의 아낌없는 노력 덕에 이렇듯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합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질 높은 건강검진을 강조하셨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질 높은 건강검진이란.

삶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특히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죠.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하는 검진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검진센터 측에서 최고의 의료시설로 질병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질 높은 건강검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현재 충청남도의 저소득층 5,000여 명에게 성인병검진 시행과 더불어 대전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 1,500여 명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거노인과 수용시설 거주자 등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관리협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초심을 잃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합검진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